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을 통해 본 어린이책 정보의 현황과 과제

어린이책 정보의 양상과 특성

책 정보란 책을 사거나 읽으려고 고르는 데 활용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일반도서(어른 대상의 책)와 견주어 어린이책에서는 각종 추천, 권장목록이 정보의 큰 부분을 이룬다. 정보량도 많고 활용도도 높다. 어린이책은 어른들에 의해 매개되어 독자인 어린이에게 전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도 학생들이 책 정보를 주로 부모, 선생님의 추천, 선정도서 목록에서 얻는다고 답하고 있어서 성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어린이책 정보는 정보제공자에 따라 (1) 출판사와 판매업체의 홍보물, (2)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선정과 서평, (3) 전문가의 비평과 서평, (4) 학부모, 교사, 사서에 의한 각종 평가, 추천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 올 환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triview@hanmail.net

(1) 출판사와 판매업체의 홍보물 출판사와 서점의 정보는 주로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려는 상업적 목적에서 제공되며 신간에 집중된다. 출판사 영업자 모임, 유통회사

가 선정하는 목록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형서점(온라인서점 포함)의 판매전략가들은 독자 눈에 보이는 정보제공자는 아니나 매장 관리와 출판사의 판촉 기획을 유도하면서 출간 직후 구매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이 베스트셀러목록을 통해 파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요한 정보제공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들의 선정과 서평

각 기관이 전문가들로 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그 목록과 서평을 월간지나 일간지를 통해 발표한다.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성격으로 보이나, 선정위원의 전문성과 선정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공신력을 얻을 것이다. 선정위원이 아동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나 아동서 저자 2-3인이 선정한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일반도서의 경우 장르별로 선정단을 구성하는 반면 아동서는 '아동' 또는 '어린이' '청소년'으로 크게 묶고, 일반도서의 한 장르와 같은 수의 선정위원이 맞는 것이 다수이다.

(3) 전문가의 비평과 서평

전문가의 비평과 서평은 《창비어린이》, 《어린이와문학》, 《아침햇살》 등의 어린이책 전문 비평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대표적이다. 전문성이 특징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는 소통의 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다양한 책 평가가 쌓이면서 작품에 관한 역사적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

(4) 학부모, 교사, 사서에 의한 각종 평가, 추천

직접 어린이의 독서에 관여하는 부모, 교사, 사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들은 구매보다는 독서의 관점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책을 선정하고 직접 독서 활동에 개입한다. 앞의 정보들도 이들에 의해 걸러져 독자에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교사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도서를 학생들에게 필독목록으로 제시하거나, 사서가 전문비평지의 서평을 읽고 참고정보로 이용한다. 어린이들은 어른 독자와 달리 대중매체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구전커뮤니케이션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어린이책 시장은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비슷하게 시장을 양분하는데, 이는 실제로 어린이가 읽고 좋게 평가한 책이 계속해서 소비자의 책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의 독서를 매개하는 이들의 정보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도서의 정보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간지 정보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은, 매체보다 정보제공자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일간지는 앞에서 본 정보제공자들의 추천, 서평을 신는 수가 많고, 책 정보로서의 영향력이 어린이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어도연)는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서 어린이책 추천목록과 서평을 제공하고 있다. 어도연의 책 정보는 일간지를 통한 서평과 신간 추천 목록, 연간 권장도서목록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이 밖에도 계절별, 주제별 추천도서를 때마다 발표하여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기도 하고,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들이 주최하는 환경책 행사에 추천 목록을 제공하는 등 비영리, 공공적 성격의 행사에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도연 목록은 애초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 살리기 등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에는 전국 100여 개 지역모임이 도서관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면서 목록을 독서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책 정보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어린이책 정보의 양상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의 상황은 어린이책 분야에서 전문 비평집단과, 어린이책을 독서에 활용하는 주체들이 늘어나 어린이책 정보의 양과 질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어린이책 정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어린이책 정보제공자로서 교사와 사서의 활약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각급 학교도서관이 늘어났으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양적인 발전에 비추어 질적인 발전이 더딘 것은 독서 서비스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원이 하루 아침에 양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와 사서의 자발적 움직임이 제도의 더딘 변화를 앞지르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외국에서는 어린이책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자가 교육자단체와 사서협회이다. 공공부문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맡는 교사와 사서가 어린이 독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얻는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킴으로써 어린이책 출판과 독서계 발달에 이바지해 왔다. 앞으로 교사와 사서가 일방적인 목록제공자가 아니라 책에 관심을 쏟는 독서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책 정보를 생산하리라 기대한다.

둘째로 교사와 사서의 활동이 발전하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정보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 어도연 목록이 일차 자료로 많이 활용되나, 어도연의 성격상 신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어렵고, 문학 갈래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의 재원과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양서 선별 작업을 체계화한다면 좋겠다. 일차로 공공도서관이 양서 선별 기능을 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도서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 엄선된 목록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기구가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공정한 선별 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납본도서를 일정 기간 전문적인 위원회에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을 위한 수서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늘어난 민간의 상업적인 책 정보에 주의가 필요하다. 입시제도에 부응한 독서논술 교육 수요가 늘면서 사교육시장이 급팽창하였다. 방문형 도서대여업체와 각종 독서사교육기관 등이 상업 활동의 수단으로 어린이책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상업 활동과 직결된 책 정보는 정보 내용보다 출판과 유통, 독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유통질서를 교란할 뿐더러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 지도와 경시대회 등이 독서문화의 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책 정보란 정보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정보를 소통하는 주체들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창출하는가,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보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제공자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회적 책무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상업 활동과 연결된 책 정보에 대해서는 한층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㉞)